

Learning to Enjoy God's First Blessing

(하나님의 첫 축복 즐기기를 배움)(2015년 9월 7일)

Genesis 2:8-15

8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9 And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10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four headwaters. 11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12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13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14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shu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15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창세기 2장 8절~15절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돌렸으며 12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14 세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네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eaven would be like? For me, it would be a place where I could eat anything I wanted and never gain weight, and could regularly play golf with friends on an immaculate course and always shoot par or better. (여러분은 천국이 어떠한지 궁금해 보신적이 있나요? 저에게, 그곳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되 살이 찌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깨끗한 코스에서 골프를 치고 항상 파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2. All of us have our idea of a heavenly existence. In the following old tombstone epitaph, we get another person's perspective on heavenly life. Listen to this: (우리 모두는 천국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오래된 비명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가졌던 천국의 삶에 대한 시각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3. Here lies an old woman who always was tired, (항상 고단했던 한 여인이 여기 잠드노라)
4. She lived in a house where help was not hired. (그녀는 도움이 없었던 곳에서 살았다.)
5. Her last words on earth were, "Dear Friends, I am goin', (그녀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한 말은 "친구들이여, 나는 가노라.")
6. Where cookin' ain't done, nor sweepin' nor sewin' (요리도, 비자루질도, 바느질도 없는 곳으로)
7. But everything there is exact to my wishes,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되는)
8. Since nobody eats, there's no washin' of dishes. (누구도 먹지 않으니, 설거지가 필요 없고.)
9. I'll be where loud anthems will always be ringing, (나는 큰 노래가 항상 울리는 그곳에 있으리라)

10. But having no voice I'll not have to be singing. (그러나 내가 목소리를 갖지 않으리니, 나는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다네)
11. So don't mourn for me friends, don't mourn for me never, (그러니 나를 위해 친구들이여 슬퍼하지 마시오, 나를 위해 결코 슬퍼하지 마시오.)
12. Cause I'm going to heaven to do nothin' forever." (왜냐하면, 나는 아무 것도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에 가니까요."
13. "Going to heaven to do nothing forever," for me, that doesn't define heaven, that's a definition for the word "boring." I don't think I'd enjoy being in a place where I did nothing forever." ("영원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것," 저에게 그것은 천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 Obviously, the lady who penned these words looked forward to finding relief from the burdens of everyday work: and at one time or another, we all know what she feels like. At one time or another, we all would like a break from work. (분명히, 이런 글을 쓴 그 분은 매일의 일로부터 구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모두 그녀의 느낌을 압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일로부터 휴식을 구합니다.)
15. Tomorrow is Labor Day, a day when we get a break from work as we stop to reflect on those in our society who bless us with their work.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그 날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6. Interestingly, one of the first subjects discussed in the Bible is work. In the creation story, found Genesis 1, we hear about God working for six days to create the world and then resting on the seventh.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주제는 노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것을 듣습니다.)
17. As we move into the 2nd chapter of Genesis we learn about the work God gave to humankind. Listen to today's text as we hear God assigning work to Adam and Eve. Our text is found in Genesis 2:8-15.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18. 8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ut the man he had formed. 9 The Lord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out of the ground—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10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four headwaters. 11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12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13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14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hu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15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돌렸으며 12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14 세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네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9. Did you hear the last verse? The very first thing God does after creating humankind is to give them a job. He introduces Adam to work, telling him to take care of the garden he has just planted. Yes, work was one of God's first blessings bestowed upon humankind. (여러분은 마지막 구절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맨 처음 일은 그들에게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소개하시고 그에게 방금 만드신 정원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20. Now if you are seated here today, bone-weary and tired from a week of hard work, you may find it strange that I would call work God's first blessing.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다면, 주중의 일로 인해서 뼈까지 고단한 채로, 여러분은 제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축복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21. In fact, some may be quick to point out that work came as a result of sin. Pointing to Genesis 3:17-19, we are reminded that hard labor was part of God's punishment for Adam and Eve's sin. Listen to these words: 17 To Adam he said,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and ate fruit from the tree about which I commanded you, 'You must not eat from it,' "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painful toil you will eat food from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18 It will produce thorns and thistles for you, and you will eat the plants of the field. 19 By the sweat of your brow you will eat your food until you return to the ground, since from it you were taken;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사실, 어떤 분들은 일이 죄의 결과라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고된 일이 아담과 이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일부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2. Yes, phrases like "painful toil," and "the sweat of your brow," are not phrases one immediately associates with blessings. These words sound more like being cursed. (그렇습니다. "고된 수고"와 같은 말과 "네 이마의 땀"과 같은 말은 축복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저주와 보다 가깝습니다.)
23.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work God assigned in Genesis 2 and the work he assigned in Genesis 3. The work in Genesis 2 is work before sin came into the world. The worked described in Genesis 3 is work that has been turned into arduous labor by the unleashing of sin into the world. (저는 창세기 2장

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3장에서 주신 일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일은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전이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일은 세상에 죄가 일어나면서 고된 일이 된 것입니다.)

24. You see, that's the way with sin. Sin takes what is good and turns it into some evil. (여러분, 그것이 죄가 가져온 방식입니다. 죄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꿉니다.)
25. God blesses us with medication but when medication is misused it become a curse.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통해 축복합니다. 그러나 약이 오용될 때,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26. God has blessed us with food and drink but when we overeat or overdrink those blessings hurt us. (하나님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과식과 과음을 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27. God blesses us with sexual intimacy but when it's abused by sin it becomes something ugly and hurtful.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인 친밀감을 주시지만, 그것이 죄로 오용될 때, 그것은 추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28. And the same is true with work. Work in itself is God's blessing, but because of sin, God's blessing of work turns into the curse of toil. (그리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동의 축복은 수고의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29. Let me give you an example. I love my work as a pastor, and because I am surrounded by a supportive, effective staff, on most days I feel blessed to go to work. (예를 들어 보죠. 저는 목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능력 있는 직원들로 둘러 쌓여 있기에 일에 대하여 축복으로 많은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30. But, in the past, there have been those times when I have worked with staff members who have made my work situation a living hell. In those situations, work did not feel like a reward but a curse. (그러나 과거, 제가 하는 일의 상황을 지옥으로 바꾸는 직원들과 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보상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31. You see, it wasn't the work that made me feel cursed. The work was the same in both situations. It was the sinful conditions that surrounded my work, conditions that lessened God's blessing. (여러분, 저를 저주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그것은 죄 된 조건이 저의 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소시킵니다.)
32. That's what we find happening here in the Genesis account. In Genesis 2, God blesses Adam and Eve by giving them a job, by asking them to tend the Garden of Eden. But when they disobeyed God and brought sin into the world, the conditions of their work change. No longer were they tending a verdant garden.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사 그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세상에 들었을 때, 그 일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푸른 정원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33. Instead, they were tending one with thorns and thistles, no longer was that garden productive, but because of sin, they had to work unproductive land that showed little for their effort. (대신에,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원은 생산성이 없었고, 죄로 인해, 그들은 쓸모 없는 땅에서 일해야 했고, 노력에 대가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34. No, work in itself, is not a curse; it's God's blessing, and if it doesn't bless you, you can

usually trace its toilsomeness back to the effect of sin. (아닙니다. 일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대개 그것의 수고를 죄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35. In a moment, I'm going to talk about the blessing of work, but before I do, let me remind you that my words are not only being addressed to those of you who work paying jobs. (잠시, 저는 일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의 말이 단지 유급의 일을 하는 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36. Work is something that blesses all those engaged in meaningful labor, whether salaried or volunteer. It blesses children and students, as well as their parents. (일이란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봉급을 받는 것이건, 자원봉사건, 그것은 부모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학생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37. Work even blesses those who are officially retired. In fact, I find that the most content, fulfilled, retired folks are those who continue to engage in some kind of meaningful, volunteer work. (일은 심지어 공식적으로 은퇴한 분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사실, 저는 가장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이룬 은퇴한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8. So how does work bless us? First, I think work blesses us by giving us a sense of fulfillment and significance. Many of us find our value in work and I think, to some extent, that's what God intended. (그러므로 어떻게 일이 축복이 됩니까? 우선, 저는 일이 우리에게 성취와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줌으로 축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 속에서 가치를 찾고, 어느 정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 Every now and then, when I'm dealing with a family who has lost a loved one, someone will console me by saying, "I'm sorry you're having to deal with all of this. I know it must be very hard work." (종종, 제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을 위로할 때,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저런,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하다니요. 정말 힘이 드시겠군요.")
40. In one way they are right. Caring for people who are facing the most difficult days of their lives takes a lot of emotional and physical energy as well as a lot of time.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옳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시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41. But you know what? Caring for hurting people gives me a sense of fulfillment, a sense of significance. (그러나 아시지요?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는 것은 저에게 성취감과 중요한 일을 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42. When I can bring comfort to a mourning spouse or deliver a funeral eulogy that helps an entire congregation cope with the loss of someone they love, that work gives me a sense of fulfillment. (제가 슬퍼하는 배우자를 위로하고 장례식에도 애도문을 전달하는 것은 모든 회중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덜게 합니다. 그 일은 저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43. It helps me know that I've done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that has made a difference in someone's life.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일을 했고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 것을 알게 만듭니다.)
44. Perhaps that's how we should all view our work. Work will make us feel significant if we realize our labor makes a difference – a difference in someone's life, a difference in our

world.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일은 만약 우리의 일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누군가의 삶에서의 변화, 우리 세상에서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45. Yes, work blesses us because it gives us a sense of fulfillment, a sense of significance. (네, 일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감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46. But secondly, work blesses us when it gives us a sense of productivity. Few things make us feel better than the process of producing something good. (그러나 두 번째로, 일은 우리에게 생산적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47. Children learn this early on. How often have you had a child run up to you and say, "Look what I made, mommy?" (자녀들은 이것을 일찍 배웁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와서, "제가 한 것을 보세요.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48. When children stop and look at what they've made with their hands, they don't stop and think about burdensome nature of the work that created it. They are excited for the freedom and opportunity to produce something good. (자녀들이 멈추고 그들의 손으로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만든 일의 본성을 고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기회를 통해 좋은 것을 만든 것에 흥분합니다.)
49. When we feel like we are being productive, it always gives us a sense of blessing.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느낄 때, 그것은 언제나 축복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50. One of the most blessed feelings I regularly experience is what I call "the street view." Let me explain. (제가 정기적으로 경험한 가장 축복받은 느낌 중의 하나는 제가, "거리 풍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 I enjoy working in my yard and sometimes will spend days in back-breaking, exhaustive yard work, cutting grass, trimming natural areas, pulling weeds, and planting flowers. (저는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때로 허리가 끊어지고 탈진하는 일로 풀을 베고, 다듬고,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52. While I'm in the middle of the job, I don't always feel so blessed; but once my work is finished and my tools are put away, I'll walk out to the street and take "the street view." (일하는 도중에, 저는 항상 축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도구를 정리할 때, 저는 거리로 나가서 "거리풍경"을 봅니다.)
53. I walk out to the street and look back on my finished yard, and when I see the beauty of what I have created with my own hands, it makes me feel good. (제가 거리에 걸어 나가고, 일을 마친 마당을 뒤돌아 볼 때, 또한 내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
54. In fact, it makes me understand what God must have felt like at the end of each day of creation, when he would stand back and take the street view of what he created and say, "It is good. It is very good." (사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신 것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뒤에 서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거리 풍경을 보고 말합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55. Yes, from that street view I feel blessed by my work. I feel blessed because I've been able to be productive. (네, 거리풍경으로부터, 저는 일에서 오는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생산적인

것으로 인해 축복의 느낌을 얻게 됩니다.)

56. But last of all, I believe work is a blessing because work gives us a chance to exercise our God-given gifts.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는 일이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57. You see, I believe God gives each of us spiritual gifts which allow us to accomplish some kind of holy work.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종류의 사역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58. To some of us he gives the gift of public speaking, to others, the gift of making music, to others, the gift of organization, to some he gives the gift of caring for children, to others, the gift of teaching or the gift of encouraging. (우리 몇몇에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능을, 음악을 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조직을 만드는,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이를 돌보는,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치고 격려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59. Yes, God gives each of us these gifts so the work of his kingdom will be done. (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었고 당신 왕국의 일이 이루어 지도록 했습니다.)
60. But, at the same time, I believe God gives us these gifts so we can find the blessing of using them.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사 우리가 그것들을 쓰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61. Every other week, I sit down at my computer knowing I must write a newsletter article. (2주에 한 번씩, 저는 컴퓨터에 앉아 주보에 필요한 것을 쓰게 됩니다.)
62. At first, the task feels like labor. (처음에는 그 일이 노동과 같았습니다.)
63. Here I go again, having to come up with a subject and then putting that subject into words in a way that is interesting and effective. (여기 제가 다시 갑니다. 주제를 떠올리고, 그 주제를 재미있고, 효과적인 언어로 조합을 합니다.)
64. Yes, at first it feels like labor, but as I get into it, I soon feel what I call the "holy rush." It's that special feeling that comes when you realize God is using you to do something special. (네, 처음에 그것은 노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저는 곧 제가 "거룩한 돌진"이라고 부르는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것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5. That "holy rush" is waiting for all of us who will exercise our God-given gifts. ("거룩한 돌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연습할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66. God blesses us when we do what he has created us to do. God blesses us when we can see how we fit into his holy plan.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창조하사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맞출지를 볼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67. Yes, work is a blessing from God, a blessing because it allows us to feel a sense of significance, a blessing because it allows us to sense the joy of productivity, and a blessing because it allows us to understand how we fit into the Kingdom of God; but let me add a word of warning. (네,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산의 즐거움의 느끼게 하므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이해하게 함으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경고의 말을 덧붙입니다.)
68. Work can quickly change from a blessing to a curse if we do not heed God's

commandment to rest. (일은 축복에서 곧 저주로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69. When the Hebrews told the creation story, they didn't stop with telling about God's work. (히브리인들이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70. They ended the story telling about God's day of rest. And like God, our work will only be a blessing to us if we take seriously our need to rest.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하여 말을 함으로 그 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일은 오직 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 들일 때 축복이 됩니다.)
71. In closing let me offer this Irish Blessing, (마치면서, 저는 아일랜드의 축복을 제안합니다.)
72. May your work be that which warms your heart, heals your hurts, and gives your life true value.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듯하게 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명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십시오.)
73. And when all your work is over, and your day of rest has dawned, may your thoughts be not of burdens lifted, but of the tasks well done.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여러분의 안식의 날이 밝아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이 힘겹게 올릴 일이 되지 않기를, 오직 즐거운 것이 되기를)